

마카오 현대시의 발전과정과 특징 연구*

박남용**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마카오 현대시의 정의와 성격
3. 마카오 현대시의 지역성과 본토성
4. 마카오 현대시의 이산성과 세계성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마카오의 중문 현대시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마카오 현대시 속의 지역적 주변성과 이산성, 그리고 세계성을 주로 탐구하였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어 오랫동안 식민통치를 받은 지역이며, 홍콩과 인접하여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마카오 근현대시의 발전 맥락을 따라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마카오의 대표적인 화인 시인의 중국어 신시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마카오 시단 속의 본토성과 지역적 주변성을 넘어 이산성과 세계성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카오 시단도 타이완이나 홍콩처럼 중국의 54 신시 전통의 특징들을 계승하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식민과 탈식민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적인 특징들을 반영하며 현대적이면서도 포스트모던한 시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카오의 한무(韓牧)와 타오리(陶里) 시인은 캐나다와 싱가포르,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2019년 8월 18일-21일 마카오대학에서 개최된 “世界漢學研究會第三屆學術論壇暨中國新文化百年史與澳門漢學的發展國際研討會”에서 발표한 중국어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조교수

홍콩 등지로 이주하여 마카오에 대한 고향의 향수와 그리움을 나타내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카오의 시단은 지역적 주변문학으로서의 위치 속에서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며 본토문학적인 경향을 넘어 세계문학과의 접촉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카오 시문학의 다양한 고찰을 통하여 그들 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계속 발견하며 마카오 문학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마카오, 중문 현대시, 포르투갈 식민지, 지역성, 한무(韓牧), 타오리(陶里)

1. 들어가는 말

마카오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과 더불어 ‘양안사지(兩岸四地)’로 불리는 지역으로, 1888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어 오랫동안 식민통치를 받았던 지역이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일국 양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1999년 12월, 중국에 반환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마카오는 동서 문화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동방 진출의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였으며, 종교적으로 천주교가 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진지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마카오는 중서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어 포르투갈과 중국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이국적인 식민지 도시로 발전하였다. 1557년 포르투갈 선원들이 작은 항구에 지나지 않은 마카오에 상륙한 이래로 포르투갈에서는 마카오를 마조(媽祖)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도시이자, 천혜의 항구라고 칭송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마카오 지역 연구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홍콩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적인 제3의 혼종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마카오와 한국의 관계 역시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천주교가 마카오를 통하여 들어왔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홍

콩처럼 서양으로 나가거나 중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9년 마카오의 반환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다양한 마카오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마카오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마카오의 식민지 시기 이후 동서무역 교류, 마카오의 중국 반환에 따른 경제발전 전망, 카지노산업이나 각종 관광 산업적 측면 등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며, 최근의 강주아오대교 개통에 따른 마카오의 경제발전 전망이 연구되었다.¹⁾ 이와 더불어 과거의 마카오의 도시역사와 문화²⁾, 그리고 포르투갈 식민지로서의 언어적 현상에 대한 연구³⁾, 종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오문기략(澳門記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천주교의 전래에 대한 마카오의 종교적 역할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다른 자유 경제 시장으로서의 마카오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주로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매체와 영화 속에서 마카오의 관광 문화에 대한 다양한 조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마카오의 문학 연구도 더 많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마카오의 현대문학이나 현대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고전문학 분야에서 최낙민과 하경심의 고전시사 연구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최낙민은 마카오 문학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명나라의 탕현조(湯顯祖)⁴⁾가 만력(萬曆) 19년(1591)년에 마카오를 방문하여 읍

1) 이정우·오정현, 「강주아오 대교의 건설과 마카오 경제발전 전망」, 『중국학연구』 제87집, 2019.
 2) 정주연·이혜은, 「마카오의 도시경관과 세계유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2호, 2014.
 3) 나민구·박은혜, 「마카오의 1999년 중국반환 이후 현지사용언어 지위변화」, 『중국학보』 78권, 2016. 이승덕, 「마카오 포르투갈어에 관한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7권 1호, 2010. 나민구, 『마카오의 어문정책』, 『중국연구』, 제4권, 1999.
 4) 마카오 문학의 비조를 탕현조(湯顯祖)로 꼽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마카오 태생의 시창작은 아니지만 만력(萬曆) 19년(1591년)에 마카오를 지나가며 그와 관련한 시를 처음 썼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카오 문학은 사실상 명청 시대와 민국 시대의 구체시사 창작을 거쳐 1920년대 현대 신시로 발전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鄭煒明, 『澳門文學史』, 濟南: 齊魯書社, 2012, 14-15쪽.

시와 절구를 남긴 것을 서술하며, 마카오에서 보고 들은 서양인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이고 생동적으로 표현한 5편의 시를 분석하고 있다.⁵⁾ 또한 청나라 초기 중국인 예수회 신부 오력(吳歷: 字는 漁山)이 마카오의 자연·인문환경을 노래한 『삼파집(三巴集)』이나 『오중잡영(嶼中雜詠)』(三十首)을 연구하였으며, 신해혁명 시기 청의 유로(遺老)로서 마카오로 피신하여 13여 년간 마카오에 머무르면서 『오문잡시(澳門雜詩)』를 창작한 왕조용(汪兆鏞)을 통해 마카오의 근대를 연구하였다.⁶⁾ 하경심은 청대 마카오 지역에 대한 전문 기록인 『오문기략(澳門記略)』 <澳蕃篇>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풍물과 기물을 묘사하고 있는 죽지사(竹枝詞)를 연구하였다.⁷⁾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속에 나타난 마카오의 식민지 문학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근대 이후의 마카오 현지 내에서의 본격적인 현대문학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식민과 탈식민의 문학적 현상들을 이해하며 마카오 문학의 지역적 주변성과 이

5) 최낙민, 『해항도시 마카오와 상해의 문화교섭』,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87-88쪽. 예를 들면 탕현조는 「香巒逢賈胡」에서 마카오에 도착하여 처음 본 포르투갈 상인들의 배와 의복에 대해 “뽕나무도 심지 않는 전원에 살지 않지만 /마노장식에 비단옷을 입고 구름 같은 돛대에서 내리네 /밝은 구슬은 바다 위에 별의 기운을 전하며 / 백옥은 강변에서 달빛을 보네(不住田園不樹桑, 玳珂衣錦下雲檣. 明珠海上傳星氣, 白玉河邊看月光)”라고 표현하였다. 章文欽 箋注, 『澳門詩詞箋注』(明清卷), 珠海: 珠海出版社, 2002, 5쪽. 최낙민, 위의 책, 98쪽 참고.

6) 吳歷 著, 章文欽 箋注, 최낙민·김창경 역, 『삼파집(三巴集)』,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오력은 『삼파집』 1부 『오중잡영』 제1수에서 “관갑(關閘) 앞 월(粵)땅 끝으로 모래톱이 펼쳐지고 /호경(濠鏡)의 산세는 꽃송이를 닮았구나. /거객(居客)이여 놀라지 마시라 잘못 든 것이 아니니, /먼 곳에서 도를 배우고자 성마오로(三巴)까지 왔다네(關頭粵盡下平沙, 濠境山形可類花. 居客不驚非誤入, 遠從學道到三巴)”라고 노래했다. 吳歷, 위의 책, 19쪽. 章文欽 箋注, 『澳門詩詞箋注』(明清卷), 珠海: 珠海出版社, 2002, 14-37쪽 참고. 이밖에도 마카오를 다룬 최낙민의 논문으로 3편이 있다. 최낙민, 「吳漁山の 『三巴集』에 나타난 天學詩 研究」, 『중국학』 제54집, 2016. 최낙민, 「예수회신부 吳漁山の 「嶼中雜詠」을 통해 본 해항도시 마카오」, 『중국학』 제43집, 2012. 최낙민, 「汪兆鏞의 『澳門雜詩』를 통해 본 해항도시 마카오의 근대」,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9, 2018.

7) 하경심, 「『澳門記略』을 통해 본 <竹枝詞>의 기능과 수용」, 『중국어문학논집』 제72호, 2012.

산성, 그리고 세계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마카오 연구가 좀 더 정치와 경제, 종교와 관광 차원을 넘어 문학과 문화 연구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국내의 마카오의 현대문학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 속에서 마카오 시문학에 대한 한국 내의 연구를 진작시키며, 중국현대문학 연구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며, 마카오의 시문학을 대략적이거나 소개, 번역, 감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마카오와 홍콩, 그리고 타이완 문학과와의 식민과 탈식민의 문학적 현상들을 다양하게 연구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카오의 초기 신시와 현대시의 발전과정을 따라 마카오의 주요 시인과 작품에 대한 소개와 감상 및 분석을 시도하며, 마카오 현대시에 나타난 지역성과 본토성, 그리고 이산성과 세계성의 특징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마카오 현대시의 정의와 성격

마카오 현대시는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포르투갈인에 의한 시가 창작과 화인(華人)들에 의한 중국어 창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포르투갈인에 의한 시가 창작은 제외하고 주로 화인들의 중국어 창작을 그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 마카오의 시문학은 신분, 민족, 언어, 문화적 정체성 속에서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식민과 피식민에 따른 화인들에 의한 화문문학(華文文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포르투갈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치·경제의 주된 권력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포르투갈어를 할 줄 모르는 대부분의 화인 작가들은 중국어를 창작의 도구로 삼아 그들의 식민지 시대현실과 탈식민의 모던한 혼종문화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마카오는 1553년 중국과 포르투갈과 정식으로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

역의 자치권이 어느 정도 부여되기 시작하여 1888년부터 1999년 중국에 반환되기까지 포르투갈의 직접적인 식민통치를 받았다. 따라서 마카오는 중화 문화와 서양문화의 교류의 장이 되어 서양과 동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이런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의 문학창작은 포르투갈인들에 의한 문학창작과 한족에 의한 문학창작, 또는 혼혈 작가들에 의한 문학창작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많은 작가들은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에 따라 포르투갈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적 환경 속에서 어느 한 쪽의 언어를 창작언어로 삼아 문학창작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식민지 공간 속에서 포르투갈어 문학은 논의에서 제외하며 식민지 통치 시기 이래 마카오에서 창작된 한족들에 의한 중국어문학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지역에서의 문학은 중국어를 사용하여 문학을 창작하는 화문문학이 있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여 문학을 창작하는 토생문학(土生文學)이 병행 창작되었다.⁸⁾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식민지 시기의 이중언어 정책 속에서 한어를 사용하여 중화문화와 중화인의 의식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마카오의 중국어문학과 중국어시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어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8) 『中國當代新詩史』에서는 ‘離岸’과 ‘土生’으로 나누고 있다. ‘이안시인(離岸詩人)’은 마카오에서 홍콩이나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로 마카오에 대한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張鏞과 韓牧 같은 시인을 들고 있다. ‘土生’은 마카오에서 출생한 포르투갈 후예를 가리키며 대부분은 포르투갈인이 마카오에 거주하며 중국인과 결합하여 낳은 혼혈아 등을 가리킨다. 20세기 중엽 이후 나타난 ‘토생작가(土生作家)’로 소설의 江道蓮, 飛歷奇, 산문의 若瑟, 瑪爾丁妮, 극본의 飛文基 등이 있다. 시가 방면의 ‘토생시인(土生詩人)’들로는 若瑟(阿德), 李安樂, 馬若龍 등이 있다. 洪子誠·劉登翰, 『中國當代新詩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410-413쪽. 鄭焯明은 『澳文文學史』 제5장에서 마카오의 土生文學, 포르투갈어 문학과 외국어 문학창작을 서술하고 있는데, ‘土生’이라는 말을 마카오에서 대대로 거주하는 특수한 포르투갈과 중국의 혼혈 족군(族群)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 개념 속에는 마카오에서 출생하고 포르투갈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언어, 종교신앙과 습속 등 문화적으로 ‘土生’ 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土生文學’ 속의 시인과 작품으로 Jose dos Santos Ferreira(阿德: 1919-1993)의 「澳門之戀」, Leonel Alves(李安樂: 1920-1980)의 「澳門之子」, Carlos Marreiros(馬若龍: 1957-)의 「祖母的鏡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鄭焯明, 『澳門文學史』, 濟南: 齊魯書社, 2012, 143-152쪽.

또는 창작 주체에 따라 화교문학, 신이민문학, 세계화문문학, 세계화인화문문학, 중화권 한어문학, 시노폰(sinophone) 문학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특수성 속에서 화인들에 의한 중국어시 창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르투갈 국적의 외국인에 의한 포르투갈어 창작이나 한어 창작을 제외한, 중국 화인들의 중국어시의 범주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럼 마카오 현대시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또한 무엇을 마카오 화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베이징대학의 셰몐(謝冕)은 “마카오 문학의 성장과 발전은 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관련이 있다. 이런 ‘관련’은 요컨대, 우선 마카오가 항구라는 것이다. …… 다시 말하자면, 마카오는 중국의 영토이면서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전략한 정체성을 가지며, 마카오 문학의 또 다른 특징을 구성하였다”고 말하였다.⁹⁾ 이와 같은 서술로 볼 때, 마카오는 문학과 문화 교류의 항구로서 아주 큰 유동성을 지니며, 동서 문학과 문화의 교류와 융합 속에서 매우 큰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시 연구자 가오위안칭(高遠清)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마카오 문학은 마카오 화문문학을 가리킨다. 마카오 신시 평론은 마카오 화문 신시 평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카오 현지 작가가 화문으로 창작하며, 현지 또는 외지에서 발표한 신시 평론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¹⁰⁾ 이러한 가오위안칭의 정의를 통해 볼 때, 마카오 시는 기본적으로 마카오의 화인들이 화문(한어)으로 창작한 시를 일컬을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마카오라는 현지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마카오 현지 태생 작가가 마카오 현지나 외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넓게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마카오 문학이 중국문학의 일부에 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마카오 문학에는 중국문화의 영향권과 중국 대륙의 끝부분에 위치한 관계로 중국문학의 일부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의 마카오 문학

9) 謝冕, 「澳門文學研究的新成就」, 鄭煒明, 『澳門文學史』, 濟南: 齊魯書社, 2012, 2쪽.

10) “通常所說的澳文文學, 是指澳文華文文學. 澳文新詩評論, 是指澳文華文新詩評論, 具體來說, 是指澳文本本地作者用華文寫作, 在本地或外地發表的新詩評論.” 高遠清, 「澳門新詩批評發展概貌」, 『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23卷 第3期, 2006, 42쪽.

은 정치경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별개의 지역문학 또는 주변부문학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마카오의 문학은 마카오라는 지역에서 창작된 모든 문학을 기본적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그 창작자는 포르투갈 사람이나 화인들에 의한 창작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황샤오핑(黃曉峰)은 ‘마카오 문학’에도 포르투갈어 문학을 포함할 수 있는 이상, ‘중국문학’ 또는 ‘영남문학’의 일부라고 모호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마카오 태생의 시인 한무(韓牧)도 “마카오는 영원히 중국의 영토이기에, 마카오 문학은 영원히 중국문학의 일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¹⁾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마카오 문학은 지리영토, 국가와 민족, 언어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포르투갈 식민지 이전의 시기의 문학, 이후 시기의 ‘토생문학’과 ‘화문문학’, 그리고 99년 반환 후의 마카오 문학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마카오 문학은 국가와 민족, 지역과 영토, 언어와 문화에 따라 개념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카오의 문학은 대다수의 작가가 화문으로 창작하는 화인이라고 간주했을 때, 화인화문문학이라고 규정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문제는 마카오 문학의 실질적인 내용을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애정시, 현실비판시, 식민지 통치의 저항시나 식민 통치 이후의 탈식민시, 해외 이민이나 이산에 따른 시, 타이완이나 홍콩, 기타 동남아로 떠나 고향 마카오를 그리워하는 향수시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카오의 시문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화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시를 창작하게 된 시기의 문학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25년에 마카오를 제재로 창작한 신월파(新月派) 시인 원이둡(聞一多)의 「칠자의 노래·마카오(七子之歌之澳門)」을 최초의 신시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마카오 태생의 화인 작품은 아니지만 한어로 창작된 마카오 관련 신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11) 黃曉峰認為，既然“澳文文學”也包含葡語文學，就不能籠統說它是“中國文學”或“嶺南文學”的一部分。而韓牧認為，“澳門永遠是中國的領土，澳文文學永遠是中國文學的一部分。”高遠清，「澳門新詩批評發展概貌」，《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23卷 第3期，2006，42쪽.

마카오의 진정한 한어 신시는 마카오 사람이 창작한 한어(中文) 신시이자, 마카오를 제재로 한 작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¹²⁾

“그대는 ‘마카오’가 나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내가 그대의 포대기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네요, 어머니! /하지만 그들
이 빼앗아간 것은 나의 육체, /그대는 여전히 내 내심의 영혼을 지키고
있군요 /삼백 년 동안 꿈속에서도 잊지 못한 생모여! /아기의 유아명을
불러 주세요, /나를 한번 ‘아오뎬’이라고 불러 주세요 /어머니! 내가 돌아
갈게요, 어머니!”¹³⁾

1925년에 창작한 원이뒤의 이 시는 작자의 애국 감정을 잘 읽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마카오가 빨리 중국에 다시 반환될 것을 희망하는 시이다. 시인 한무는 1987년 3월에 쓴 「원이뒤의 마카오 시(聞一多的澳門詩)」에서 “중국 신시사에서 마카오를 묘사한 작품은 매우 드물며”, “이 시의 창작일이 분명하지 않은데”, “원이뒤의 『홍촉(紅燭)』(1923)과 『죽은물(死水)』(1928) 시집 및 『원이뒤전집(聞一多全集)』에도 수록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¹⁴⁾ 반제국주의적인 글들을 많이 게재한 『현대평론(現代評論)』에 발표된 이 시도 당시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작자의 애국 열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마카오도 홍콩처럼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 오랫동안 식민통치를 받았던 지역인데, 이런 중국의 빼앗긴 영토가 다시 조국의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

12) 澳文中文新詩作爲一個文學研究的概念, 應包括兩大範圍: 一、澳文人創作的中文新詩; 二、以澳門爲題材的作品。鄭煒明, 「澳門中文新詩史略」, 『華文文學』, 1999.11.15., 51쪽. 「七子之歌」라는 시는 1925년 聞一多가 미국 유학 기간에 창작한 연작시로, 중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마카오, 홍콩, 타이완, 산둥반도의威海衛, 廣州灣, 九龍島, 旅順, 大連 등 서구 열강에 양도되거나 할양된 조차 지역들을 조국의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간 일곱 아들로 의인화하여 조국의 흥성과 민중의 각성을 고취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13) “你可知‘媽港’不是我的眞名姓? …… /我離開你的襁褓太久了, 母親! /但是他們擄去的是我的肉體, /你依然保管着我內心的靈魂。/三百年來夢寐不忘的生母啊! /請叫兒的乳名, 叫我一聲‘澳門’! /母親! 我要回來, 母親!” 聞一多, 「七子之歌之澳門」, 『現代評論』, 第二卷第三十期, 1925年7月4日。鄭煒明 編, 『澳門新詩選』, 澳門: 澳門基金會, 1996, 283쪽.

14) 韓牧, 「聞一多的澳門詩」, 『韓牧散文選』, 香港: 藍天圖書, 2008, 74쪽.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이뒤의 시를 이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카오 화인 현대시의 출발은 1930년대 후반 더강(德亢), 웨이인(蔚蔭), 웨핑관(魏奉槃), 파오링커(飄零客) 등의 시인들이 쓴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항전을 노래한 것들이다.¹⁵⁾ 더강 시인은 「봄의 풍광(春底風光)」과 「광저우, 그대에게(給你, 廣州)」(1938) 등의 시를 창작하였는데, “풍광이 출렁이듯 /봄새가 날며 /멀리서 전해오는 웃음소리 /유쾌한 감정의 실타래 같다 // (생략) //우주가 어둡게 짙은 이를 슬프게 장사지내는데 /자유 의 신이여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했으며, 일제 침략자들에게 광저우가 유린당하는 전쟁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¹⁶⁾ 특히 웨이인의 장시 「거리에서(在街上)」는 5부 687행에 이르는 마카오 신시사에서 가장 긴 시로,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추악한 현상들과 광명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였다.¹⁷⁾ 이외에도 루쥘(盧遜)이 1932년 상하이에서 창작한 「마카오의 노래(澳門吟)」에서는 “오, 빨아들여라! 오, 심취해라! 오, 즐겨라! /나선균(螺旋菌)이 솟구치는 천당에서!”¹⁸⁾라며 각 연마다 마카오의 도박, 미신, 마약, 전쟁 등 각종의 사회문제를 반영하였다.

1940년대까지의 마카오 시단의 특징에 대해 장사오촨(江少川)은 “첫째는 중국의 5·4 신문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작가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마카오와 내지의 문화교류가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었으며, 둘째는 항전 기간 동안에 마카오 문학과 내지의 중국문학이 서로 호응하며 문예계 저명한 인사들이 마카오에 와서 항전문예를 선전하였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⁹⁾ 따

15) 鄭煒明이 편한 『澳門新詩選』 목차를 보면, 內篇에서는 위의 4인을 1930년대 마카오 신시의 출발로 맨앞에 두고 있으며, 1950년대 시인으로 雪山草를 두고 있으며, 外篇에서는 聞一多(1920년대)와 盧遜(1930년대), 謝康(1950년대) 시인을 맨앞에 두고 있다.

16) “彷彿風光在蕩漾, /也像是春鳥飛翔 /遠遠地傳來笑聲, /似是情絲底快暢. // (생략) //宇宙暗悲喪壯士, /自由之神你往哪兒去?” 德亢, 「春底風光」, 鄭煒明 編, 『澳門新詩選』, 澳門: 澳門基金會, 1996, 5-7쪽.

17) 江少川, 『台港澳文學論稿』,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247쪽.

18) “哦! 吮吸! 哦, 沉酣!, 哦, 樂未央! /在這螺旋菌洶湧的天堂!” 盧遜, 「澳門吟」, 鄭煒明 編, 『澳門新詩選』, 澳門: 澳門基金會, 1996, 287쪽.

라서 이 시기는 마카오 시단의 초기 형성기로 원이뤄나 루쉰 같은 대륙의 작가들에 의해 마카오를 제재로 한 시가 창작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 항일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더강, 웨이인, 웨이핑관, 파오링커 등의 시인의 시가 창작되어 중국의 대지가 파괴되며 많은 유랑민들이 떠돌며 병중에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대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중국 대륙이 전쟁과 사회주의 정권의 성립 때문에 마카오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인들이 중국 내지로 들어갔으며, 마카오의 시단은 내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1950년 3월에는 『신원지(新園地)』와 『학연보(學聯報)』 등 문학작품들이 창간되며 주로 소설을 게재하였다. 1950년대에는 세강(謝康) 교수의 「마카오(澳門)」(1950년대 작품으로 간주됨)란 신시와 쉘산차오(雪山草)의 「차를 따는 아가씨의 노래(採茶姑娘的歌)」(1957) 등의 시가 있을 뿐이다. 세강은 「마카오」에서 마카오가 중국과 포르투갈 두 민족이 함께 발전하는 곳이지만 밀수, 도박, 아편, 성매매 등을 위해 홍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²⁰⁾ 쉘산차오는 「차를 따는 아가씨의 노래」에서 “흰구름 하늘 위를 떠가는데 /아가씨의 노랫소리 하늘가를 울리며 /진실한 축복과 안부를 물으며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머무르네”라며 자연 속에서 차를 따는 아가씨의 평화로운 일상적 삶을 표현하였다.²¹⁾

1958년에 『마카오일보(澳門日報)』가 창간되며 그 종합 부간으로 『신원지』를 발간하며 여러 소설들을 게재했다. 1963년에는 『붉은콩(紅豆)』 잡지가 발행되며 시인들에게 시를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의 중요 시인들로는 싱신(行心: 즉 위권후이(余君慧)), 리단(李丹), 왕하오한(汪浩瀚), 쉘산차오(雪山草), 장쓰양(江思揚), 한무(韓牧) 등을 포함한다. 1970년대

19) 江少川, 위의 책, 247쪽.

20) 謝康, 「澳門」, 鄭煒明 編, 『澳門新詩選』, 澳門: 澳門基金會, 1996, 291-292쪽.

21) “一朵朵白雲天上飄呵 /姑娘的歌聲打天邊飛旋 /帶着赤誠的祝福和問候 /姑娘的歌聲停在親愛的人心間” 雪山草, 「採茶姑娘的歌」, 鄭煒明 編, 『澳門新詩選』, 澳門: 澳門基金會, 1996, 41쪽.

에는 이들 시인들이 더욱 발전하며 자신의 시풍을 형성하였다. 특히 ‘양서(兩棲)’ 시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신분적으로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시인들이 있다. 한무는 홍콩으로 이주하며 홍콩과 동남아에 시명을 드러내었다가 다시 캐나다로 이주하여 모더니즘의 길로 나아갔다. 그리고 시인 타오리(陶里)도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지를 떠돌다가 홍콩과 마카오에서 활동하며 캐나다로 이주하여 캐나다의 화문 시단을 이끌었다. 이와 유사하게 마카오에서 태어나 홍콩으로 이주한 시인 천더진(陳德錦)도 있다.

마카오 현대시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1980-90년대로 마카오 문학의 변영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시인들이 대거 등장하여 노시인들과 청년시인들이 공존하였고, 캐나다로 이주한 시인들과 본토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젊은 시인들이 공존하며 마카오 시단이 더욱 풍성해졌다. 또한 마카오의 동야대학(東亞大學: 현재의 마카오대학)을 졸업한 젊은 시인들이 등장하며 마카오 본토 태생의 작가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등장하였다. 아울러 1989년에는 ‘오월시사(五月詩社)’가 성립되며 마카오의 모든 작가들이 마카오 창작학회 구성원이 되어 마카오의 신시선과 단편소설선, 산문선 등의 문학적 성과들을 출판하였다. 이를 통해 마카오의 시단도 중국 내지와 타이완, 홍콩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마카오 시단만의 ‘모토성’, ‘포용성’, ‘지역성’ 등의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²²⁾

이상의 서술로 볼 때, 마카오 현대시는 화인들의 중국어 창작에 의해 192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신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향전시 창작기를 지나 1950년대 이래 마카오의 독자적인 시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마카오 시단은 초창기 대륙이나 홍콩의 영향권 아래 외부의 이식에 의해 형성 발전하며, 점차 마카오 화인들에 의한 자발적인 문예 잡지의 창간과 시사 형성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시단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세력들이 등장하여 마카오 문학의 형상을 세우며, 해외에서 마카오로 또는 마카오에서 해외로 이주한 시인들에 의해 마카오 시단

22) 江少川, 위의 책, 250-252쪽 참고.

이 더욱 풍부해졌다. 그후, 마카오대학을 졸업한 새로운 신세대 시인들이 등장하여 마카오 시단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3. 마카오 현대시의 지역성과 본토성

마카오 신시의 출발은 192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마카오 현지에서의 문학 잡지의 창간은 1933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정웨이밍(鄭煒明)의 『마카오문학사(澳門文學史)』에 따르면, 1933년에 “신문학 잡지 『작은 기어(小齒輪)』는 마카오의 거주 작가이자 당시 홍콩·마카오의 좌익문예조직이었던 군력학사(群力學社)의 주요 성원이었던 루형(魯衡)이 주편한 것이다. 이 잡지 안에는 마카오 본토 작가가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펑싸오(馮騷)가 쓴 산문 「배 안의 밤(艙中之夜)」 말미에 ‘1933년 8월 16일, 마카오에서’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그 외에도 마카오에는 문학간행물로 1940년대의 『예봉(藝峰)』이라 불리는 순문학 월간이 창간되었고, 마카오 본토에서 발행된 간행물로 마카오에 거주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게재되어 이 당시의 신문학 창작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잡지에는 현실주의와 애국주의적 창작 주류 속에서 테예(鐵鑿)의 신시 「채찍 아래(鞭撻下)」는 외국 침략자를 반대하는 주제가 반영되었다.²⁴⁾ 이후 1945년 이후에는 『번개(迅雷)』라는 문예주간이 출판되고, 1950년에는 『신원지』라는 문예간행물이 창간되었으며, 1963년에는 『붉은콩』이라는 문예간행물이 창간되었다.

이러한 문예간행물이 창간되고 많은 작가들이 새롭게 등장하며 마카오 시단에는 몇 개의 유파가 형성되어 발전하였다. 정웨이밍은 「마카오 중문 신시 사략(澳門中文新詩史略)」에서 마카오 중문 신시를 창작수법상에서 대략 세 개의 유파로 나누고 있는데, 즉 신시파(新詩派), 모더니즘파(現代派), 포스트

23) 鄭煒明, 『澳門文學史』, 濟南: 齊魯書社, 2012, 74쪽.

24) 鄭煒明, 「五四至七十年中期澳門新文學概述」, 『世界華文文學論壇』, 2000.1, 13쪽.

모더니즘파(後現代派)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 유파의 분류를 볼 때 당연히 마카오의 역사와 사회 발전 맥락과 매우 일치한다. 무엇보다 식민지 통치 시기 5·4 신문화의 영향 아래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애국주의적 정서를 반영하는 신시가 다수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 이래 신시의 전통을 계승한 시인들로는 대략 펑강이(馮剛毅: 필명 윈두허(雲獨鶴)), 윈리(雲力:원명 윈웨이리(雲惟利)), 후샤오핑(胡曉風), 왕하오한(汪浩瀚), 장쓰양(江思揚) 등의 시인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파가 있는데, 중국의 몽롱시의 영향을 받은 가오거(高戈), 류싱쯔(流星子), 타오쿵리(淘空了) 등이 있고, 타이완과 홍콩의 현대파 시풍격의 영향을 받은 한무, 타오리, 우귀창(吳國昌), 왕윈(玉文), 천다성(陳達升) 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0년대 이후의 후현대파 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웨이밍(葦鳴), 이링(懿靈), 링둔(凌鈍) 등의 시인들이 있다. 정웨이밍은 이러한 마카오의 시파를 구분하며 마카오의 중문 신시사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결론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마카오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해외로 이주한 작가들로 한무, 장취(張錨), 천더진(陳德錦), 장농차오(張弄潮), 중웨이민(鍾偉民), 황쿤야오(黃坤堯) 등의 시인을 예로 들며 이들의 마카오 제재의 시들이 상당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마카오에 인접해 있는 지역의 시인들이 마카오로 이주해 와서 창작하거나 마카오를 관광하고 유람하는 가운데 그 심리상태를 창작한 작품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⁵⁾

마카오 시가 유파의 창작 경향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은 마카오 현대시의 지역성과 본토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카오 현대시의 자생성을 밝히는 것으로 외래의 영향도 약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내부에서 잡지를 창간하며 작가의 작품들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카오의 현대시 또한 가장 지역적이고 본토적인 것이 가장 마카오의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카오의 시문학이 중국 대륙이나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의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밝혀내

25) 鄭煒明, 「澳門中文新詩史略」, 『華文文學』, 1999.11.15., 39쪽.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카오의 지역성과 본토성을 서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마카오 현대시에 대한 문학적 토양과 자양분에 대한 전통의 형성이다. 특히 마카오의 신시파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의 시에서는 마카오의 본토문학을 통해 마카오의 사회 문화 현실에 대한 형상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마카오 문학의 지역성과 본토성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마카오의 식민지적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포르투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중국과 포르투갈의 식민과 탈식민 사이에서 새로운 혼종문화에 대한 시인들의 의식 속에서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금속이나 구리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빛을 반짝반짝 내지도 않는다 /해도 내리쬐고, 비도 내리며 /바람은, 바다의 잔비릿내를 풍기며 /그대 얼굴을 향해 스쳐간다 /이끼때는, 그대 발 아래에서 기어오르고 /그대의 눈썹과 머리카락에 가득 쌓이며 /그대의 온몸을 연록색으로 두른다 //앞의 해수면에 /긴 다리가 있고, 길이 있을 지라도 /그대의 마음은 뛰지도 않고 /피도 흐르지 않는다. 그의 호흡은 /채채기 할 힘조차도 없다 /그대가 높이 든 가죽 채찍은 /왜 말 등 위를 후려칠 수도 없는데 /왜 뛰어오를 수도 없는 자세로 /그대의 말은, 경직되었는가” -- 汪浩瀚, 「銅馬像」 전문²⁶⁾

이 시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카오의 역사의식과 시간의식을 느끼게 해준다. 마카오 곳곳에 있는 포르투갈 식민통치자들의 오래된 동마상(銅馬像) 영웅을 통해 식민지의 역사와 시간의 흔적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동마상이 오래도록 남아 이끼가 발아래부터 기어오르며 동상의 온몸을 휘감고 있다는

26) “不再像金屬, 不再像銅 /不再那麼閃閃生光 /日也來晒, 雨也來淋 /風, 挾着海的腥咸 /向你撲面而來 /苔鏽, 從你腳下爬上 /堆滿你的眉, 堆滿你的髮 /把你全身都圍困在慘綠中 //即使前面的海面上 /有一條長橋, 有一條路 /但你的心已不再跳動 /血不再流. 你的呼吸 /連打一個噴嚏的力量也沒有 /你高舉的皮鞭 /怎麼也抽不到馬背上 /而你的馬, 也僵硬成一個 /怎麼也躍不起的姿勢” 汪浩瀚, 「銅馬像」,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896쪽.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2연에서는 그대의 마음이 뛰지도 않고, 피도 흐르지 않으며 재채기할 힘조차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를 뛰어넘어 현실의 민족적인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그대의 말이 더 이상 뛰어오를 수도 없는 자세로 경직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이미 모든 화려한 과거의 기억은 이미 박제되어 버렸다. 이러한 시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느끼게 하면서 민족과 현실에 충실했던 어느 영웅의 정신과 역사적 임무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를 통해 마카오의 식민지 시대 현실을 반영하면서 역사와 민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또한 마카오의 본토현실과 지역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시인으로 장쓰양(江思揚)이 있다. 본명이 리장(李江)으로 마카오에서 『화교보(華僑報)』 『대중보(大衆報)』 부간을 편집하며 「북(鼓)」이란 시를 창작하였다.

“인류가 절벽동굴과 삼림으로 나아갈 때 /북소리는 평원에서 요동쳤다 //
검과 불의 시대에 /북소리를 좋아하는 용사가 /무수한 도시를 함락시켰다 /승리를 환호하는 순간 /흥분된 북소리는 /수억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즐거움 집회에 /광란의 축제에 /정과 수많은 관현악기가 /환락의 북장단에 맞추어 /사람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북이여, 그대가 격렬히 떨리는 순간 /앞으로 향해 사람들이 분발해 나아가며 /비에를 밀어젖히고, 피곤함을 쫓아버리니 /북이여, 그대가 깊이 잠든 청춘을 일깨우며 /아침 기운이 솟아오르는 아침을 맞이하러 가리라” -- 江思揚, 「鼓」 전문²⁷⁾

장쓰양의 「북」이란 작품은 평원에서 요동쳤던 북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생명 의식의 각성과 여명의 아침을 맞는 청춘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를 살펴볼 때 마카오의 시인은 중국 대륙의 기나긴 혁명과 전쟁의 과정을

27) “當人類走出崖洞和森林 /鼓聲便在平原上激蕩 //在劍與火的年代 /愛鼓聲激發的勇士 /摧毀了無數城鎮 /在歡呼勝利的時刻 /鼓聲引爆的興奮 /激動着億萬人心 //在喜慶的集會 /在狂歡的盛典 /羅鑼與千百管弦 /總是伴着歡樂的鼓點 /宣泄着人們的激情 //鼓呵, 你劇烈的顫動 /令人奮發向前 /推開悲哀、趕跑疲倦 /鼓呵, 你喚醒沉睡的青春 /去迎接朝氣蓬勃的早晨” 江思揚, 「鼓」,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903-904쪽.

간접적으로나마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가는 즈음의 환희의 감격을 표현하며 미래의 희망찬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각성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리(雲力) 시인의 시 「낙타(駱駝)」라는 시도 마찬가지로 중국 신시의 전통을 계승하며 마카오의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원리는 싱가포르에서 출생하여 1970년 난양대학(南洋大學) 중문과를 졸업한 후에 영국 리즈대학에서 언어학 박사가 되고 1981년 마카오 동아대학(東亞大學) 중문과 교수가 되어 마카오 펜클럽 감사장을 역임했으며 시집으로 『대막집(大漠集)』이 있다. 그는 「가옥관 밖 장성(嘉峪關外長城)」에서 “아무도 없는 왜소한 장성 담장뿐 / 호인들이 이미 멀어졌는데 / 변방을 지키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 (생략) / 가옥관 밖에는 호마(胡馬)도 보이지 않는데 / 양떼 한 무리가 바다처럼 보이네”라고 노래하였다.²⁸⁾ 이 시는 마치 당나라 때의 변새시를 생각나게 하듯이 가옥관 변방 지역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멀리 떠나간 장수의 고통과 함께 고향을 떠난 향수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아울러 옛 풍경을 빌어 오늘날 시인의 적막감과 황량감을 역사적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인의 다른 작품 「낙타」를 한 번 더 보도록 한다.

“모래는 바다처럼 / 모래는 고해처럼 / 아주 무거운 고난을 짊어지고 / 끝없는 모래바람 속에서 / 배처럼 느리게 나아간다 // 배처럼 느리게 나아가는 / 하늘 가득한 모래먼지 / 바다 위 짙은 안개 같다 / 안개 속에서 부침하며 / 길 잃은 나그네가 / 피안으로 건너간다 // 피안으로 건너가는 / 일출에서 일몰까지 / 천년의 무거운 부담이 / 등의 무거운 풀이 짓누르며 / 풀이 봉우리처럼 커진다 // 풀이 봉우리 같이 있으면서 / 의지할 곳 없는 행인에게 / 모래바람을 막아준다 / 바람이 멈추었을 때 / 등의 털이 / 바람 따라 훑날린다” -- 雲力, 「駱駝」 전문²⁹⁾

28) “無人的長城 / 只是一道矮牆. / 胡人已遠, / 戍邊的人不回. / (생략) / 關外不見胡馬, / 但見大群綿羊似海.” -- 雲力, 「嘉峪關外長城」,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937쪽.

시인의 창작에 있어 보통 낙타의 이미지는 사막 속에서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길을 의미한다. 물도 없는 사막 속에서 외롭게 모래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걸어가는 낙타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인간의 황량함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 시에는 사막의 모래를 바다 같이 표현하며 모래는 인생의 고해를 상징하며 낙타는 그런 인생의 고해를 건너가는 배처럼 표현한다. 무엇보다도 이 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연상에 의한 시적 장치가 잘 어울려 시를 읽는 즐거움을 준다는 점이다. 즉 모래-바다-고해-고난-배-하늘-안개-나그네-피안 등으로 이어지는 말꼬리 잇기처럼 한 연의 마지막이 다음 연의 시작이 되어 시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낙타의 생존방식에 대한 시인의 연상적 상상력을 통하여 사실주의적인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시를 통해 낙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을 생각할 수 있으며 시인의 의식에 내재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해할 수 있다.

4. 마카오 현대시의 이산성과 세계성

마카오 현대시의 지역적 주변성을 이해하며 그 타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카오 시인들의 해외 이주와 교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마카오는 지역적 특수성상 홍콩과 거리가 매우 가깝고 쉽게 서구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들도 바로 옆의 홍콩의 문화적 자양분을 함께 나누며 홍콩문학의 발전과 함께 마카오의 문학도 타자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역이 서구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고, 사회주의

29) “沙如海, /沙如苦海, /馱着重重的苦難, /在無邊的風沙中 /緩行如舟. //緩行如舟, /漫天的沙塵 /如海上的濃霧. /在霧中浮沈, /把迷途的旅人 /渡過彼岸. //渡過彼岸, /從日出到日落. /千年的重負壓成 /背上沈重的茧, /茧大如峰. //茧在如峰, /給無依的行人 /擋住風沙. /風定時, /背上的毛 /隨風飄下.” -- 雲力, 「駱駝」,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938-939쪽.

중국 대륙과 다르게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을 발전시키며 비교적 자유롭게 동서 교류를 진행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카오의 작가들 역시 마카오에서 나고 자라면서 점차 타이완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지로 이주하였다가 캐나다로 이주하는 작가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편으로는 마카오에 고향과 민족의 뿌리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서구의 이국적인 자유로운 물질문화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시를 창작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작가 스스로가 ‘양서(兩棲)’라고 자칭하는 시인 한무(韓牧)가 있다.

한무는 마카오에서 출생하여 60년대부터 시작하여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캐나다로 이주하여 화문작가로서의 높은 위상을 지닌 작가이다. 1984년 한무는 “마카오 문학의 형상을 건립하자”고 제안하며 마카오 신시의 전망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마카오 문학의 형상을 세우자(建立澳門文學的形象)」에서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호소하고 싶다. 마카오 문학의 형상을 건립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범위 속에서 화문으로 창작하는 문학은 중국 대륙, 타이완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동남아의 화교, 화교 후예가 쓴 것들도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 국가는 화문이 관방에서 승인한 언어이다. 이외에도 홍콩과 마카오 두 지역이 더 있다.”고 하였다.³⁰⁾ 한무는 이 글에서 마카오 문학의 형상 건립을 위해 마카오 문학사료를 발굴하고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며, 마카오 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예단체를 조직하고 외지와 교류하며 문학반을 만들고, 매년 시선집을 만들고 문학상을 제정하고 아동문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³¹⁾ 따라서 한무의 시와 평론을 통해 마카오 시의 국제적인 위상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마카오 시의 이산성과 세계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무의 「연리수(連理樹)」란 시를 보도록 하자.

“연리수가 말한다 나는 연리가 아니라고 /이른바 연리는 서로 뒤엉켜 있

30) 韓牧, 「建立澳門文學的形象」, 『韓牧評論選』, 홍콩: 利源書報社, 2006, 21쪽.

31) 韓牧, 위의 글, 23-26쪽.

는 것이라고 /양자의 작은 천지에 서로 얽매어 있다고 //나는 깃털족(羽族) /푸른 십억 뿌리의 깃털을 떨치는 나를 보며 /나는 푸른 하늘을 땀도는 족속 //나는 땅의 족속 /고공부터 대지를 향해 미련의 네 다리를 펼치며 /영원히 대지에 포복한 짐승 //사실 나는 용(龍) /푸른 십억 조각의 비늘 껍데기를 떨치며 /하늘을 비상하고 땅을 기어가고 물속을 잠수한다”
 -- 韓牧, 「連理樹」 전문³²⁾

이 시 제목 아래에 “망하촌에 고목이 있었네. 세 갈래 거대한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 마치 네 줄기가 연이어 서 있었기에, 연리수라 불렀다”는 것처럼 중국의 영토가 ‘양안사지’ 등 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³³⁾ 한무의 이 시는 중화민족의 역사문화 배경을 반영하며 뿌리 깊은 문화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연리수의 나무 형상을 빌어 중화민족이 대륙,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 ‘양안사지’로 나누어진 상황을 묘사하면서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작품 속에서는 ‘뿌리(根)’의 형상을 통해 깊은 문화적 연대를 살펴볼 수 있고, 땅과 하늘을 서로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을 깃털족(羽族)과 용(龍)으로 표현하며 ‘십억’ 인구의 뿌리와 조각을 통해 마카오의 대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처럼 생동감 있게 조국의 대지와 전통문화, 그리고 민족적 감정의 층만 속에서 격양된 여자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에 이주한 한목의 시적 정서 속에는 여전히 타국에 살면서도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980년대 이래 마카오 시단에서 중요한 시인의 한 명으로 꼽고 있는 시인 타오리(陶里)의 작품 「무제(無題)」, 「구리(銅)」 등의 작품을 보도록 하자. 타오리는 마카오의 저명한 시인으로 원명이 웨이이젠(危亦健)으

32) “連理樹說 我并非連理 /所謂連理 是互相糾結 /互相拖累於兩者的小天地 //我是羽族 /看我振起十億根翠綠的羽毛 /我上升 我飛旋 我屬於青天 //我屬於地 /自高空 我向大地伸下留戀的四足 /我是永遠匍伏大地的獸類 //其實我是龍 /振動十億片翠綠的鱗甲 /飛翔於天 爬行於地 潛遊於水” 韓牧, 「連理樹」, 위의 책, 894쪽.

33) “望厦村有古樹, 三條巨型氣根入地, 如四千連立, 稱連理樹.” 韓牧, 「連理樹」,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894쪽.

로, 마카오대학 중문과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거쳐 60년대에 홍콩 문단에 들어갔다가 70년대에는 마카오의 교육기구에 종사하며 '오월시사(五月詩社)'의 동인이 되어 활동하였다. 홍쯔칭(洪子誠)의 『중국당대신시사(中國當代新詩史)』 제21장에서 '마카오의 당대 신시'라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절 부분 중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시인이 바로 타오리이다. 타오리의 시는 “초기에 낭만주의와 비판적 현실주의적 색채로부터 메이강(湄江) 강변에서의 이상의 추구하고 궤멸, 그리고 전쟁의 잔혹함과 현실의 재난”을 썼지만 홍콩과 마카오로 돌아온 후기에는 변화하는 현대 도시를 마주하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으며 폭넓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더니즘적인 작품을 창작하였고, 마카오라는 동서문화가 교류하는 역사적 공간을 조용히 관찰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³⁴⁾ 여기에서 타오리의 「무제(無題)」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말발굽이 다그닥다그닥 /붉은 홍등문 비취 담장과 기와에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는데 /이곳 풍광이 좋구나 친구여 /무심코 그대를 놀라게 하며 나는 이처럼 분주한데 /말은 나에게 달려 /이정표가 정해지지 않는 내 앞길로 나가며 /정말로 잊을 수가 없는지 /그대와 함께 주조되었지만 잃어버린 검 /길은 나의 것 게다가 /영원은 나의 것 나는 이 때문에 즐겁고 /즐거운데 나는 이미 /그대 집 문밖 말 없는 과객이 되었네” -- 陶里, 「無題」 전문³⁵⁾

타오리의 「무제」라는 작품은 말발굽과 말, 검, 그리고 떠도는 과객이 주는 이미지로 볼 때 중국의 전통적 서정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인생이 마치 물과 같이 흐르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 발전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친구를 부르며 내 인생의 앞길이 즐겁게

34) 洪子誠·劉登翰, 『中國當代新詩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407-408쪽.

35) “馬蹄達達 /風卷塵埃飛上火紅門牆翡翠瓦 /風光是這邊的好 朋友 /我無意讓你驚訝我是如此匆匆 /馬屬於我 /我屬於不定方向標的前路 /却一直沒有忘懷 /與你一同鑄造而又失落的劍 /道路屬於我 而且 /永遠屬於我 我因此快樂 /快樂我曾經是 /你家門外的無語過客” 陶里, 「無題」,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890쪽.

펼쳐질 것이라고 안위한다. 시인 내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추억과 감회, 쾌락의 감정으로 충만하여 시적 자아의 정신적 이상을 펼치고 있다. 다음 작품으로, ‘원러우에게(致文樓)’라는 부제가 타오리의 「구리(銅)」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자.

“나는 그대의 고향에서 오며 /그대가 선물한 것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메이강(湄江) 채색 노을이나 /터우둔항(頭頓港)의 파도소리를 /그대와 나는 /저 다정한 항구에서 발을 씻으며 /시공(西貢)의 협소한 화실에서 /그대가 화려한 빛깔로 그려내는 /지혜를 /나는 보고 있었다 //나는 홍콩의 구리에 /놀란다 바로 /그대 생명을 준 /구리 /나는 그대의 소리가 아주 오래된 도시를 찾기 위해 /구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구리의 정령을 /보았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 전에 서서 /나는 금자탑이 조각되기 전에 서서 /빅토리아 항구 양쪽 해안에 /그대의 빛나는 /구리가 세워진다 /도쿄와 뉴욕 그리고 더 먼 도시도 /그대의 구리를 /세우리라 그대의 이름을 /구리(銅)라고 부르리라” -- 陶里, 「銅」 전문³⁶⁾

이 작품은 ‘구리’라는 금속성 사물에 대해 읊고 있는 영물시와 같은 느낌을 준다. 타오리는 베트남과 태국을 떠도는 다양한 인생 체험 속에서 구리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홍콩의 현대화된 도시적 이미지 속에서 구리의 정령을 보며, 도쿄와 뉴욕 같은 도시들처럼 구리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현대적 도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구리라는 사물의 세계를 통해 서정과 서사 그리고 의론이 상호 결합되어 작품의 예술적 매력을 더해 주고 있다. 타오리는 「마카오란 하나의 산(澳門一座山)」이라는 시에서 “마카오에 산이 많지만 /사실 하나의 산이 있을 뿐 /마카오에 물길이 많

36) “我來自你的故鄉 /後悔沒有帶來 /贈你 /一抹湄江彩霞 /或一陣 /頭頓港的濤聲 /你與我會濯足於 /那個多情的港 /在西貢那個狹小的畫室 /我會看着 /你以繽紛顏彩揮寫 /智慧 //我驚訝於香港的 /銅 就是 /你 把生命賜給 /銅 /我為尋找你的聲音去太古城 /聽到 /銅在說話 /見到 /銅的精靈 /我站在愛因斯坦四維之前 /我站在金字塔雕刻之前 /維多利亞港兩岸有 /你光輝的 /銅 豎起 /東京和紐約以及更遠的都城將 /豎起 /你的銅 把你的名字叫做 /銅” 陶里, 「銅-致文樓」,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892- 893쪽.

지만 /사실 하나의 물길이 있을 뿐 /그것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끝이 없는 물 /(생략) /마카오의 영원한 아름다움은 /발 아래 신발에 있는 것이 아니네”라고 노래하였다.³⁷⁾ 타오리는 이와 같이 마카오의 산과 물, 꽃 피지 않은 나무 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시인 자신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마카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새로운 젊은 시인들의 출현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시의 창작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타오리는 1999년 마카오문학총서(澳門文學叢書) 편찬위원회의 일원으로 서문을 쓰며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카오 시인들은 전통 신시를 썼다. 80년대에 이르러 모더니즘 시인 우귀창(吳國昌), 지더밍(季德明), 천다성(陳達升), 웨이밍(韋鳴), 란마(藍瑪) 등이 나타났고, 특히 대륙에서 남하해온 신이민과 남양에서 북상한 귀교(歸僑) 시인들이 몽룡시와 모더니즘의 매혹자들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⁸⁾ 더욱이 동야대학(東亞大學) 졸업자들과 오월시사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新生代) 시인들이 성장하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인들까지 나타났다.³⁹⁾ 예를 들면 웨이밍(본명 정웨이밍(鄭煒明)), 이링(懿靈), 링둔(凌鈍) 등의 시인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마카오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기존의 선배 시인들이 전통과 현대의 세계

37) “澳門有許多座山 /其實只有一座山 /澳門有許多道水 /其實只有一道水 /它是一口不見底的井 /欲有打不完的水 /(생략) /澳門的永恆美麗 /不在足下一雙鞋子” 陶里, 「澳門一座山」, 『夜泊』, 澳門: 澳門日報出版社, 2008, 74쪽.

38) 陶里, 「澳門文學叢書概說」, 林玉鳳, 『忘了』,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1999, 6쪽.

39) 마카오 현대시에서 1990년대 포스트모던한 시창작 현상이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1970-80년대 이래 홍콩에서 예쓰(也斯) 시인처럼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창작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마카오에서 ‘포스트모더니즘’(後現代主義) 용어가 처음 출현한 것은 시인 티아(梯亞)가 1990년 『澳門筆匯』 제2기에 「後現代現象-一個文本(解讀或者誤讀)」라는 글을 쓰면서부터이다. 이후 1995년 이링(懿靈)은 「後現代的足跡-從新生代詩作看澳門後現代主義詩歌的實踐概況」에서 마카오 시 속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정신을 서술하였다. 마카오 시의 본토성과 당대성을 이해하며 링둔(凌鈍), 웨이밍(韋鳴) 등의 시창작에서 이러한 포스트모던적인 요소를 적합하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饒芃子·莫嘉麗, 『邊緣的解讀: 澳門文學論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49-50쪽 참고.

를 추구했던 경향과 다르게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의 길로 나아갔다. 또한 90년대 이래에는 린위핑(林玉鳳), 황원후이(黃文輝), 세샤오빙(謝小冰), 평칭청(馮傾城) 등의 신세대 시인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시단의 고적함을 뛰어넘어 견인과 성숙의 길로 나아갔으며, 마카오문학상을 수상하며 시단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중화 문화에 뿌리를 두면서도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송귀화(熊國華)는 1999년 『시간(詩刊)』에 발표한 「세기말의 마카오 신시(世紀之交的澳門新詩)」라는 글에서 마카오 문학상 시가 작품들을 평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역사감, 현실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많았으며, 둘째는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마카오 회귀 전의 진실한 심리상태와 마카오의 문화 다원성이 뒤섞여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고, 셋째는 예술풍격과 표현수법으로 볼 때, ‘제작기 자신의 독특한 특징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우 다채로웠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송귀화의 관점을 볼 때, 80-90년대 마카오 시단은 이미 자신의 독특한 시가 풍격을 가지고 현대적이고 포스트모던적인 시적 감각 속에서 마카오 시의 독특성과 개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카오 시단의 독특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문화다원주의적이면서도 신분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새로운 예술창작 수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카오 현대시에서 가장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창작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링(懿靈)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링은 본명이 정묘오산(鄭妙珊)이며, 1965년 마카오에서 출생하여 마카오 동야대학(東亞大學)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며 문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마카오 중국어문학회 이사이자 오월시사 사원을 역임하였다. 이링은 「90년대 마카오 시단 발전 탐구(90年代澳門詩壇發展勘探)」란 글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 관련된 서술들이

40) 熊國華, 「世紀之交的澳門新詩-第三屆澳門文學獎詩歌作品漫評」, 『詩刊』第11期, 1999, 76-77쪽.

나타나고 있는데, 마카오의 첫 번째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실천자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적으로 기존의 문학 주류에 대한 작가의 엄격한 반성과 변화 요구의 제기일 뿐이다.(동시에 자신이 처한 시공간의 모든 사물의 합리성과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재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결과는 문학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표현되었다. 첫째는 제재의 무한한 확장으로 금지 구역을 돌파해 가는 경향이며, 두 번째는 제재를 표현하는 수단과 형식의 무제한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이 링의 「절연(絶緣)」이란 작품을 보도록 하자.

“예전엔 /사랑이 위험했어요 /협죽도의 독처럼 /손가락 끝에 /때때로 남아 /조금만 손상되면 /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습관이 되었어요 /신농이 온갖 풀을 맛보듯이 /독은 이미 효과가 없어요 /이런 면역능력으로 /사랑은 절연되어 버렸어요” -- 懿靈, 「絶緣」 전문⁴²⁾

이 시는 여성 시인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감상적이면서도 이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애정시이다. 사랑의 위험과 사랑의 습관을 대조시키며, 사랑의 진정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 예전에는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험할 정도였으나 지금은 사랑에 아무런 면역능력이 없어 절연되어 버렸다. 시인은 사랑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말하면서 사랑을 협죽도의 독이나 신농씨의 백초에 비유하며 사랑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이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현대인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생활 속에서 사랑에 대한 감각도 매우 퇴보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링은 마카오 여성 시인으로서 남성 시인들의 세계와 다르게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시를 창작하였다. 그녀의 다른 시 「패방 위의 정탐(牌坊上的窺探)」를 보도록 하자.

41) 鄭煒明, 「澳門中文新詩史略」, 『華文文學』, 1999.11.15., 53쪽. 再引用.

42) “從前 /愛是一種危險 /像夾竹桃的毒液 /不時留在指尖 /只要一丁點兒損傷 /就得賠上性命 //如今 /愛是一種習慣 /像神農嘗盡百草 /毒液已無作用 /這麼一種免疫能力 /愛已變成絶緣” 懿靈, 「絶緣」,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911쪽.

“갈매기가 /수면의 마지막 별빛을 물고 /새벽바람이 /거울 같은 바다 인어의 귀밑머리 쓸어올리는데 /반쪽이 이지러진 모자는 /육십팔 층의 우울함을 드리우고 /언덕 위에 모여 사는 땅강아지와 개미를 위해 /역사를 증거하며 서 있다 //돌은 병어리 /병어리의 자백은 공백 /세심한 사람만이 /갈라진 틈속에서 /남은 핏자국을 찾을 수 있으니—— /수부와 무사의 죄책감.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은 못하겠지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현원문화를 /담장의 좁은 틈에 유폐시키기 시작한 후부터 /뿌리 없는 이끼처럼 /돌판의 캄캄한 그림자 아래서 구차하게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다 //부서진 담장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는지 /그것은 인어를 위한 신앙을 세웠다-- 분신불굴 /하지만 현실의 홍수가 종교를 전복시켰고 /미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기대하노니! //죄수실에 있는 것은 성상이 아니라 /뭉여 있는 살아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을 비웃고 있다 /사십 개의 기둥 /사십개의 감탄부호 /추억의 대전 속에 /민족의 가지와 잎이 시들어 가는 것을 /어찌 다 쓸 수 있으랴……” --懿靈, 「牌坊上的窺探」 전문⁴³⁾

이 시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여성의 고통스런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여성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민족문화와 삶의 현실을 반성하며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는 여성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 속에는 여성이 바닷가의 인어 형상이 되어 오랫동안 세월을 증거하지만 ‘병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바다의 여신을 숭배하는 마조(媽祖) 신앙으로 발전되었지만 새로운 사회 현실은 이러한 종교신앙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기대하고 있노니!”라고 말하

43) “海鷗刁去 /水面最後一片星輝, /晨風撩起 /鏡海漁女的鬢髮 /半頂殘缺的黃冠, /垂着六十八層抑鬱, /爲小丘上聚居的螻蟻, /矗立着歷史的佐證. //石頭是啞巴, 啞巴的供詞是空白. /只有細心的人 /才能在裂縫里 /見到點點殘存的血漬——/水手和武士的罪證. //記不起是個怎樣的日子, /思想穿上洋裝的人, /開始把軒轅文化 /幽禁在牆隙里, /無根的苔蘚, /在石板的暗影下苟且偷生. //殘垣的不倒是天意, /它爲漁女建立了信仰——/焚身而不屈. /但現實的洪流傾覆了宗教, /在未知的時代里, /人們期待着重生的洗禮! //囚室里的不是聖像, /是被綁的活人, /恥笑着“自由的人”, /四十根柱子, /四十個嘆號, /在回憶的大典里, /又豈能寫盡 /民族枝葉的枯萎……” 懿靈, 「牌坊上的窺探」, 高巍 主編, 『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 太原: 書海出版社, 1993, 912-913쪽.

고 있듯이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향한 시인의 시적 인식 속에서 마카오 여성 시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여성의 현실과 고난에 대한 작가의 시적 인식은 매우 다층적이다. 그것은 어두운 암흑의 현실과 욕심팔 층이란 고층 높이, 말할 수 없는 병어리의 입장, 현원 황제 문화와 같은 오랜 유가적 전통문화, 석판의 어두운 그림자, 시들어가는 민족의 가지와 잎 등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정경교용적 묘사 속에서 봉건예교의 상징과 같은 패방의 낡은 유물로부터 여성의 인권에 대한 유린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상해방 운동의 흐름 속에서 자유인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였다.

5. 나오는 말

이상에서 마카오의 중문 현대시의 발전 맥락을 따라 식민과 탈식민의 시대 현실과 다양한 시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카오 시인들과 작품들을 분석하며 본토성과 지역적 주변성, 그리고 국제적인 이산성과 세계성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어 1999년 중국에 반환되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서구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식민지의 역사를 지닌 공간이다. 이러한 마카오는 서구의 동양 진출을 위한 무역 교두보나 종교적 진출, 동서 문화의 상호 교류 등 많은 역할을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카오는 동서 문화의 흔적을 나누어 가지면서 독특한 문화경관을 드러내며 많은 관광지와 문화유산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카오의 역사, 정치경제,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의 문학과 중국 반환 이후의 탈식민 문학도 함께 연구할 필요성이 매우 많은 지역이다.

마카오 시단은 타이완이나 홍콩처럼 중국의 54 신시 전통의 특징들을 계승하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현실적인 특징들을 반영하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적 시세계까지 창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

인들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면 마카오 시인들은 동시대의 대륙보다는 타이완이나 홍콩, 싱가포르의 시단들과 자주 교류하는 경향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무와 타오리 같은 일부 작가들은 추후에 캐나다나 싱가포르, 홍콩 등지로 이주하여 마카오에 대한 고향 향수와 그리움을 나타내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카오의 시단은 지역문학적, 본토문학적인 경향을 넘어 세계문학과 접목 속에서 더욱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카오 현대시는 중국 신월파의 애국시인이자 민주투사라고 일컬어지는 원이뤄의 「칠자의 노래(七子之歌)」 속에서 그 단초가 시작되었으며, 혁명과 전쟁, 항전을 겪으면서도 중국의 신문학 전통을 계승하여 사회와 역사의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주의적 작품세계가 많았다. 더욱이 1950-60년대부터 『신원지(新園地)』와 『붉은콩(紅豆)』 같은 문학잡지의 창간을 통하여 점차 마카오의 지역문화와 본토문화를 반영하는 시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몽룡시나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열기 속에서 마카오의 시문학도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현대파 경향들이 자주 나타나며 중국의 당대시와 서구의 세계시와 흐름을 함께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마카오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한무나 타오리 등을 통하여 마카오의 시문학을 국제적으로 더욱 알릴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화인화문학으로 연결하는 마카오의 화문문학적 성격과 마카오의 형상을 건립하게 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마카오 시문학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마카오의 작가와 작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카오의 식민과 탈식민 문학의 특징을 밝혀내며 마카오 문학의 정체성을 밝혀내기로 한다. 마카오 시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문학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연구함으로써 마카오 문학의 동아시아 문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한다.

參考文獻

- 江少川 選評,『台港澳文學作品選』,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2000.
- 江少川,『台港澳文學論稿』,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5.
- 江少川·朱文斌 主編,『台港澳暨海外華文文學教程』,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2014.
- 高巍 主編,『世界華人詩歌鑒賞大辭典』,太原:書海出版社,1993.
- 高遠清,「澳門新詩批評發展概貌」,『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23卷 第3期,2006.
- 高遠清,「澳門新詩創作及其評論特徵」,『西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4卷 第6期,2008.
- 郭銀星 選編,『港澳台詩歌精品』,沈陽:春風文藝出版社,1994.
- 陶里,『夜泊』,澳門:澳門日報出版社,2008.
- 呂志鵬,『澳門中文新詩發展史研究(1938-2008)』,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1.
- 李丹,黃文輝 編,『李丹詩選』,澳門:澳門特別行政區政府文化局,2019.
- 李展鵬,『隱形澳門』,新北:遠足文化,2018.
- 李觀鼎 編,『澳門文學評論選』(上下編),澳門:澳門基金會,1998.
- 李觀鼎 編,『澳門現代詩選』(上下冊),澳門:澳門基金會,2007.
- 林玉鳳,『忘了』,北京:中國文聯出版社,1999.
- 葉靜欣·韓牧,『她鄉,他鄉』,澳門:澳門日報出版社,2018.
- 王珂,「澳門新詩文體特徵及澳門詩人詩體觀」,『北方論叢』第1期,2015.
- 饒芃子·莫嘉麗,『邊緣的解讀:澳門文學論稿』,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
- 熊國華,「世紀之交的澳門新詩」,『詩刊』第11期,1999.
- 張劍樺,「澳門詩歌發展脈絡概述」,『世界華文文學論壇』,2014.2.
- 莊文永,「澳門回歸15年來新詩發展概觀」,『新文學評論』4期,2014.
- 章文欽 箋注,『澳門詩詞箋注』(4冊),珠海:珠海出版社,2002.
- 鄭國偉·鄒君儀 編,『澳門文學新氣象1』,澳門:澳門日報出版社,2017.
- 鄭煒明,「澳門中文新詩史略」,『華文文學』,1999.11.15.
- 鄭煒明,「五四至七十年中期澳門新文學概述」,『世界華文文學論壇』,2000.1.

- 鄭煒明, 「八十年代至九十年代初的澳門華文文學活動」, 『學術研究』 第6期, 1995.
- 鄭煒明 編, 『澳門新詩選』, 澳門: 澳門基金會, 1996.
- 鄭煒明, 『澳門文學史』, 濟南: 齊魯書社, 2012.
- 朱壽桐, 『漢語新文學與澳門文學』,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8.
- 韓牧, 『韓牧散文選』, 香港: 藍天圖書, 2008.
- 韓牧, 『韓牧評論選』, 香港: 利源書報社, 2006.
- 洪子誠·劉登翰, 『中國當代新詩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 나민구, 「마카오의 어문정책」, 『중국연구』 제4권, 1999년.
- 나민구·박은혜, 「마카오의 1999년 중국반환 이후 현지사용언어 지위변화」, 『중국학보』 78권, 2016.
- 李德超, 「明清間澳門耶穌會士與東西文化交流」, 『중국학보』 31권, 1991.
- 신용철 외, 동양학연구학회 편, 『마카오 1999년』, 서울: 우석, 1999.
- 吳歷, 章文欽 箋注, 최낙민·김창경 역, 『삼파집(三巴集)』,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 오일환, 「마카오사(澳門史) 연구를 위한 시론」, 『동양학연구』 제5집, 1999.
- 이승덕, 「마카오 포르투갈어에 관한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7권 1호, 2010.
- 이정우·오정현, 「강주아오 대교의 건설과 마카오 경제발전 전망」, 『중국학연구』 제87집, 2019.
- 정주연·이혜은, 「마카오의 도시경관과 세계유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 2호, 2014.
- 최낙민, 「예수회신부 吳漁山의 「嶧中雜詠」을 통해 본 해항도시 마카오」, 『중국학』 제43집, 2012.
- 최낙민, 「吳漁山의 『三巴集』에 나타난 天學詩 研究」, 『중국학』 제54집, 2016.
- 최낙민, 「汪兆鏞의 『澳門雜詩』를 통해 본 해항도시 마카오의 근대」,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9, 2018.
- 최낙민, 『해항도시 마카오와 상해의 문화교섭』,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 하경심, 「『澳門記略』을 통해 본 <竹枝詞>의 기능과 수용」, 『중국어문학논집』

제72호, 2012.

黃啓臣·鄭煒明, 박기수·차경애 역, 『마카오의 역사와 경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Poetry in Macau

Park, Nam Yong

This article studi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Macau's modern Chinese poetry, mainly exploring the locality, diaspora, and globality of Macau's modern Chinese poetry. Macau is a Portuguese colony that has long been colonized and has a special history and culture adjacent to Hong Kong.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Macau's modern poetry, he analyzed the works of Chinese poets representing Macau from the 1920s until recently. This stud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diaspora and glob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mainlan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Macau's modern new poetry. Macau's poetry world, like Taiwan and Hong Kong, has also shown a tendency to create both modern and postmodern quotations, reflecting unique historical, social, and realistic characteristics of China's May Four New modern poetry tradition. Looking at these poets' works, we could see that Macau poets tended to interact with poets from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more than with contemporary China. Furthermore, the poet Han-Mu and Tao-Li of Macao later moved to Canada, Singapore, and Hong Kong to create many works to express their homesick nostalgia and longing for Macau. From this point of view, Macau's poetry world should be considered further in its integration with the world literature, beyond its regional and mainland literary tendencies. Further discov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inherent in their literature,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characteristics of diaspora that expand into the Overseas Chinese literature of the world.

Key words : Macau, Modern Chinese Poetry, Portuguese Colony, Locality, Han-Mu, Tao-Li

투 고 일 : 2021. 7. 10. / 심 사 일 : 2021. 7. 15.~ 2021. 8. 15. / 게재확정일 : 2021. 8. 20.